

순창 문화공연 풍성

문화가 있는 날 전시·입장료 할인 '드림필 오케스트라' 공연 계획도

순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공연을 풍성히 준비하여 군민 문화복지 향상은 물론이고 문화순창을 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은 장류박물관, 육천골미술관, 순창군립도서관, 작은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에서 기획전시, 입장료 할인

등 생활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토회관에서는 지난 달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퓨전 국악극,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과 29일은 쌍치초등학교와 복흥초등학교에서 수준 높은 드림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열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다고 한다.

6월 28일은 향토회관에서 나니레 국악극단의 '미스터 춘풍'을, 7월 25일에는 경기도립국악단의 국악뮤지컬 '곰돌이의 여행'을, 8월 중순에는 일품공원에서 '한 여름 밤의 페스티벌' 등을 열어 여름철 피서객 맞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7월과 8월에는 향가오도캠핑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캠프도 추진된다. 이 행사는 6월 4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각 50명씩 2회에 걸쳐 치러지며, 캠핑장내 방갈로에 꿈, 환경, 친구, 우리 동네, 공동체, 문화, 예술이라는 6개의 테마로 체험형 책방을 꾸며,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에서 책을 읽고 사색과 토론을 진행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강화해서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올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기간에는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을 선보이고, '가을 음악회' 등을 운영해서 전복과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6월 25일과 29일 순창쌍치초등학교와 복흥초등학교에서 드림필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남원시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개인부담 보험료의 주택 30%, 온실 35% 추가 지원

남원시는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영 구역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주택과 온실(하우스 포함)의 보험료는 정부지원 비율이 총 보험료의 55%로 국민이 부담하는 비

율은 총 보험료의 45%이나, 남원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인부담금의 30~35%(주택 30%, 온실 3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총 보험료의 주민부담 비율은 주택 31.5%(80㎡기준, 약3천원), 온실 29.3%(500㎡기준, 약8만5000원)로서 남원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전과, 반과, 소과의 3단계로 나누어서 보상을 실시하며, 보험기간은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남원시 안전재난과(620-6964) 및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NH농협손해, KB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순창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무료 시행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오늘부터 신청 접수

순창군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혀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통산 농산물 시료 1점당 1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잔류농약검사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직접 수행해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지난해 문을 연 친환경연구센터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안전성분석연구실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6월 1일부터 실시하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원하는 농가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은 농산물 1kg을 채취,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의뢰하

면 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320가지 성분의 잔류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90여종의 첨단 장비까지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또 7개월간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오류 확률도 확실하게 낮췄다.

친환경연구센터는 내년 1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현장에서 관행적인 농약사용과 미등록 농약사용 등으로 인한 부적합농산물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교육 및 현장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임실군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 집중 감찰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주·야 없이 압행감찰 등 강도 높은 특별 집중 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군은 지난 3월부터 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군은 7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구성, 감찰 활동을 벌여왔다.

주요 감찰 내용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와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민선유도를 위한 선심성 행정 행태 등이다.

또한,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찰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선거를 앞두고 느슨해진 분위기를 틈타 대민행정 지연·방치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 관련 사항 전반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군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감찰을 통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지하시설물 인프라 구축

임실군은 지난 30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계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통해 군은 도로와 상수, 하수시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2016년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신규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추진되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12억9,000만원(국비60%, 군비40%)이며, 지난 해부터 3년간 추진 중이다. 전산화 사업의 총 구간은 222.16km(도로, 상수, 하수 등)이며,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 완료된 데이터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되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뿐 아니라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등 7대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각종 공사 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기본틀 만들기 시동

용역 통해 유관기관과 방향 모색키로

남원시가 주민 주도적 공동체 활동으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위한 커다란 기본틀 만들기 계획에 착수하였다.

시는 지난 31일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 공동체 운영위원회, 공동체센터,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대 남원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남원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와 사업수행 세부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문답변 및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은

그동안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주민 주도형의 시민참여 활동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주의를 탈피하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마을로 변화하기 위한 시민들의 바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특색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활기찬 도시로 발전시킬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공동체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 및 숨어 있는 마을 활동가 등과도 활발한 만남의 기회를 가져 성과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

획이다.

한편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공동체 관련 정부 방향 및 대내외 환경분석 ▲미션, 비전, 경영이념 등 운영전략 방향 설정 ▲민간 위탁 방안 등 중장기 운영전략 및 실행방안 ▲단계별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의 삶이 연계된 마을마다 특색 있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중점역할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이 다함께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